



떡볶이는 달다 (초등 4단계)

단비어린이 □ 홍민정 글 / 황여진 그림



표지 탐색하기

<떡볶이는 달다>를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.

1) 여러분은 떡볶이를 좋아하나요? (예, 아니오)

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

□

2) '떡볶이' 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써 보세요.

□

3) 앞표지의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?

□

4) 책의 제목 '떡볶이는 달다'를 보면, 어떤 이야기일 것 같은가요?

□

5) 책의 뒷표지에 쓰인 글을 읽어봅시다. 이 책에는 홍민정 선생님의 재미있으면서도 가슴 찡한 단편 동화 세 편이 실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세 편의 동화 제목 <떡볶이는 달다>, <게맛살 커플>, <라볶이의 원조>를 보고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을 고르고, 그 이유를 써 보세요.

□ 흥미 1등 :

이유 :



떡볶이는 달다 (초등 4단계)

단비어린이 □ 홍민정 글 / 황여진 그림



작가의 말 탐색하기

<떡볶이는 달다> 책의 4~6쪽 '작가의 말'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보세요.

1)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 할 정도로 마음에 쏙 드는 무엇 앞에 '인생'을 붙여서 '인생 OO'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해요. 여러분이 이제껏 먹어본 것 중에서 가장 입맛에 잘 맞고 잊을 수 없는 '인생 분식'은 무엇인가요? 아래 빈칸에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.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나의 인생 분식을 소개합니다]</p> <p>□메뉴명 :</p> <p>□언제, 어디에서, 누구와 먹었나?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□</p> <p>□어떤 점에서 인생 분식이라고 할 수 있나?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□</p>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머리말(작가의 말) 살펴보기

'작가의 말'에는 작가님이 책을 쓰신 까닭이나 책 전체 내용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고, 작가님이 독자에게 바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.

2) '작가의 말'에서 홍민정 작가님이 이 책 <떡볶이는 달다>를 쓰신 까닭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세요.

□



떡볶이는 달다 (초등 4단계)

단비어린이 □ 홍민정 글 / 황여진 그림



어휘력 쑥쑥 키우기

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국어사전을 활용하며 책 읽기

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 가며 책을 읽어봅시다.

- ① <떡볶이는 달다>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낱말이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은 낱말은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를 해 둡니다.
- ②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여 어휘 기록장을 만듭니다. 찾을 낱말과 그 낱말이 책에서 나온 문장을 쓰고,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아 정리합니다.

나오는 쪽	낱말	낱말이 나온 문장 / 낱말의 사전적인 뜻
(예) 18쪽	(예) 외면	(예) □문장 : 나까지 엄마 가게를 외면하면 안 될 것 같았다. □뜻 : 마주치기를 꺼리어 피하거나 얼굴을 돌림.



떡볶이는 달다 (초등 4단계)

단비어린이 □ 홍민정 글 / 황여진 그림



떡볶이는 달다(1)

<떡볶이는 달다>를 읽고 나서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생각하며 (가)~(마)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세요.

(가) 나는 연필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.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박진희만 나를 돌아봤다.

“우리 엄마는 불량 식품 안 팔거든. 함부로 얘기하지 마.”

나는 주먹까지 쥐면서 얘기하는데, 박진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.

“나는 너희 엄마가 불량 식품 판다고 한 적 없거든.”

(나) “엄마, 우리 가게에서 궁중 떡볶이 만들어서 팔면 안 돼? 매운 거 못 먹는 애들 진짜 많거든. 내 짝꿍 진혁이 있지? 개는 급식에 나온 김치도 물에 헹궈서 먹는다? 어때? 좋은 생각이지? 그지, 그지? 나 머리 되게 좋지, 엄마? 하하하하하.”

(다) “그럼 왜 나한테는 같이 가자고 안 했니?”

괜한 트집이었다. 같이 가자고 해도 나는 가지 않았을 테니까. 엄마가 새 떡볶이집이 생기기 전부터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□□.

(라) “정은아, 엄마도 힘들다. 이제 겨우 단골도 생기고, 자리 좀 잡나보다 했는데 이렇게 돼서, 엄마 너무 힘들어.”

‘내가 더 힘들어!’

이 말은 안 하길 잘했다. 엄마가 의자에 무너지듯이 주저앉았다. 그러고는 평평 울었다. 엄마가 내 앞에서 울고 있다. 차라리 엄마를 붙잡고 엉엉 같이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.

(마)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데, 엄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간장 떡볶이 한 접시를 가져다 주었다.

“자, 오늘의 맛 평가단 여러분. 이 아줌마가 야심차게 준비한 메뉴니까 먹고 맛이 어떤지 솔직하게 말해 줘.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하고.”
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


떡볶이는 달다 (초등 4단계)

단비어린이 □ 홍민정 글 / 황여진 그림



떡볶이는 달다(2)

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

내가 등장인물이라면

인물 일기 쓰기, 인물 탐구, 자신이 탐구한 인물이 되어 일기 쓰기

다음 상황에서 내가 등장인물이라면 어떻게 느끼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일기로 써 봅시다. 글을 읽고 정은이와 유빈이의 입장에서 각각 인물 일기를 써 보세요.

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닫힘 버튼을 눌렀다. 문이 닫히려는 순간 유빈이가 올라탔다.
 “그러다가 문에 끼면 어쩌려고 그러냐?”
 짜증이 나서 한 말인데 꼭 걱정해서 하는 말처럼 들렸나 보다.
 “나 아까 떡볶이 사 먹으려고 거기에 서 있었던 거 아냐.”
 “네가 어디서 뭘 사 먹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.”
 나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통명스럽게 대답했다. 갑자기 유빈이가 버럭 화를 냈다.
 “야, 이정은! 너는 어떻게 그깟 일로 삼총사 우정을 깰 수가 있니? (중략)”
 “근데 거기 떡볶이 맛있냐?”
 엉망진창인 질문에 유빈이가 피식 웃으면서 대답했다.
 “나 매운 것 잘 못 먹잖아. 돌핀 떡볶이는 너무 매워서 먹고 나면 배가 아파.”
 그 말이 꼭 “너희 엄마 떡볶이가 더 맛있어.” 하는 말처럼 들렸다.

정은이의 일기

유빈이의 일기



떡볶이는 달다 (초등 4단계)

단비어린이 □ 홍민정 글 / 황여진 그림



게맛살 커플(1)

<게맛살 커플>을 읽고 나서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생각하며 (가)~(마)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세요.

(가) “아이고, 송 영감. 사람 참 고약하네. 오늘 우리 100일이잖아요, 100일. 100일 되는 날 커플링 사러 가자고 해 놓고 이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. 거, 참. 실없는 영감일세. 커플링 끼고 맛있는 것도 먹기로 했잖아요. 앞으로 같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려고 누워 있어요, 네?”

(나) 놀이공원 입구는 사람들로 붐볐다. 그 많은 사람 속에서도 유진이와 할아버지가 단박에 눈에 들어왔다. 할아버지를 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. 할머니가 입은 것과 똑같은 조끼를 입고 나온 거다. 유진이와 나는 손가락 신호로 두 분의 조끼를 가리켰다.

(다) “아빠한테 왜 말 안 했니?” / “뭘요?”
“아빠 지금 장난할 기분 아니다. 할머니 남자 친구 말이야.”
“□□.”
“할머니가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어?” 꼭 그런 건 아니었다.

(라) 병원 점심 식사가 나왔을 때 나는 엄마가 싸 준 도시락을 꺼냈다. 할머니 도시락에만 쪽지가 들어 있었다. 할머니가 그것을 펴 보더니 살며시 미소 지었다. 그러고는 김밥 몇 알을 은박 접시에 담아 할아버지 앞에 놓아 드렸다. 게맛살이 두 줄로 박힌 김밥이었다.

(마) “허둥주, 일어나.” 엄마가 내 엉덩이를 두드려 잠을 깨웠다.
“왜요, 엄마. 오늘 일요일인데 왜 벌써 깨워요?”
“시끄러. 일어나 봐. 너 어제 어디 갔었어?”
엄마가 어제의 일을 묻는다. 분명 도서관에 간다고 했는데 그걸 확인하는 건 놀이공원에 간 걸 들켰다는 얘기다.

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



떡볶이는 달다 (초등 4단계)

단비어린이 □ 홍민정 글 / 황여진 그림



게맛살 커플(2)

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내가 등장인물이라면

인물 일기 쓰기, 인물 탐구, 자신이 탐구한 인물이 되어 일기 쓰기

다음 상황에서 내가 등장인물이라면 어떻게 느끼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일기로 써 봅시다. 글을 읽고 할머니, 아빠, 엄마, 동주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 그 인물의 입장에서 인물 일기를 써 보세요.

“내 나이가 몇이냐?” / “어머니.”

“내가 열 살이냐, 스무 살이냐.” / “어머니 그게 아니고□□.”

엄마는 할머니께 할 말이 많은 것 같았다. 하지만 아빠에게 그 할 말을 미루고 있는 듯이 보였다.

“사람들 눈도 있는데 이려고 다니시면□□.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셨잖아요. 그냥 가끔 노인 대학에 나가시고, 친구 분하고 관광 다니시고 그러면 좋잖아요.”

아빠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.

“그러면 좋다고 누가 그래?” 할머니 목소리가 높아졌다.

“왜 안 되니? 너희 젊은 것들은 되고 나 같은 늙은이는 안 되니? 동주같이 밤톨만한 애들도 여자 친구, 남자 친구 하나씩은 다 있더라. 저희끼리 백일 기념일 챙기고, 사진도 찍고 개가 쏘아지게 노는데 난 왜 안 되니?”

()의 일기



떡볶이는 달다 (초등 4단계)

단비어린이 □ 홍민정 글 / 황여진 그림



라볶이의 원조(2)

<라볶이의 원조>에서 지훈이네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숙제를 내 주셨어요. 여러분도 지훈이네 반이라고 생각하고 이 숙제에 대한 보고서를 써 보세요.

“너희들 원조가 뭔지 알지?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을 원조라고 한다. 아이들의 원조, 빈대떡의 원조, 원조 순댓국, 뭐 이런 것들. 다음 시간까지 누가 원조인지 조사하고 왜 그 사람이 원조인지 이유도 찾아와야 해.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되고, 어른한테 물어봐도 된다. 집 근처에 ‘원조라는 간판을 단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한테 물어보는 방법도 있겠지?”

알고 있는 원조에 대해서 조사하기

<보고서>

-누가 원조인지, 왜 그 사람이 원조인지 조사하기

--	--



떡볶이는 달다 (초등 4단계)

단비어린이 □ 홍민정 글 / 황여진 그림



정답과 해설

예시답안은 모범답안과는 다릅니다.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. ^^

1쪽	<p>1) (예시답안) 예, 쫄깃하고 매콤한 맛이 좋아서</p> <p>2) (예시답안) 어묵, 튀김, 순대 등</p> <p>3) (예시답안) 여자아이 네 명이 떡볶이 접시를 앞에 놓고 환하게 웃으면서 먹고 있다.</p> <p>4) (예시답안) 함께 떡볶이를 먹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소재로 한 이야기일 것 같다. 친구들과 함께라면 매운 떡볶이도 달게 느껴진다는 것.</p> <p>5) (예시답안) 라볶이의 원조, 라볶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원조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. 제목을 보니 궁금해진다.</p>
2쪽	<p>1) (예시답안) 감동란 / 지난달에 편의점에서 친구들과 같이 먹었다. / 삶은 계란보다 부드럽고 촉촉하면서 간이 짭조롬해서 몇 개라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맛있다.</p> <p>2) (예시답안) 그런 떡볶이집이 아무런 추억도 이야기도 없는 가맹점 떡볶이집에 밀려나는 것이 마음 아팠어요.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쓰고 싶었나 봐요. 어린 시절을 풍요롭게 해 준 학교 앞 떡볶이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요.</p>
3쪽	<p>(예시답안)</p> <p>23쪽, 해체, 문장 : 삼총사를 해체했다는 자부심에 진희는 날마다 의기양양했다. / 뜻 : 체제나 조직 따위가 붕괴함. 또는 그것을 붕괴하게 함.</p> <p>25쪽, 단골, 문장 : 미령이와 진희가 돌핀 떡볶이 단골이 된 것도 그런 이유일 거다. / 뜻 : 늘 정하여 놓고 거래를 하는 손님.</p>
4쪽	(다) □ (가) □ (라) □ (나) □ (마)
5쪽	(가이드) 정은이와 유빈이가 투닥임 끝에 화해한 일을 각자의 입장에서 일기로 써 봅니다. 이때 있었던 일뿐 아니라 생각하고 느낀 점이 드러나도록 쓰세요.
6쪽	(나) □ (마) □ (다) □ (가) □ (라)
7쪽	(가이드) 각 인물의 성격이나 상황이 드러나도록 쓰는 것이 좋습니다.
8쪽	<p>1) ① 돌아다니면서 ② 아깁 ③ 나중예 ④ 할미</p> <p>2) 정량보다 물을 적게 넣고 끓였다. 3) 돈을 아끼려고</p>
9쪽	생략.